보 험 계 동 정

▲ 보험업계 조찬회

한국보험공사는 보험업계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 서울 플라자호텔 4층에서 재무부장관 초청보험업계 조찬회를 가졌다.

▲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 개정

재무부는 보험환경 및 보험 수요변동에 적극 부응하고 손해보험의 담보력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지난 5월4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를 개정, 각 손해보험회사에 시달. 손보업계는 보험료의 조정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6월중에 마무리짓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.

▲손해보험단 친선 테니스대회

제8회 손해보험단 친선 테니스대회가 대한손해보험협회 주최로 지난 5월11일 여의도 제일테니스클럽에서 개최 되었다.

이 대회에는 보험공사, 화보협회, 요율산정회, AHA등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17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서로의 유대와 친선을 도모.

▲ 한·일보험특별세미나 개최

한국보험학회(회장 朴思會)는 지난 5월2일부터 이틀동안 시내 교보빌딩에서 보험관계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0주년을 기념하는 한·일보험특별세미나를 개최. 이날 발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.

◇보험학 20년의 회고와 선진화의 과제 : 韓東湖 (보험학회이사, 성균관대 교수)

◇보험행정과 보험법20년의 회고와 선진화의 과제 : 孫珠瓚(보험학회이사, 연세대 교수)

◇생명보험20년의 회고와 선진화의 과제 : 李京龍 (보험학회이사, 서강대교수)

◇손해보험20년의 회고와 선진화의 과제 = 趙秀雄 (보험학회 회원, 손보협회기획조사부장)

◇공영보험20년의 회고와 선진화의 과제 : 申守植(보험학회이사, 고려대교수)

◇일본의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손사고보험(조항)에 대하여 : 金澤 理(일본보험학회 평의원, 조도전대 교수)

◇일본에 있어서 생명보험의 최근 동향: 安井信夫(일본보험학회이사, 중앙대교수)

▲ 적립형 상해보험 개발

동양화재해상보험(주)는「적립형 상해보험」을 개발, 지난 3월17일자로 재무부로부터 단독 인가 받아 4월1일부터 판매 개시.

이 보험은 신체를 대상으로 위험과 저축을 겸하는 신종 장기상해보험으로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하여 주며 매년 계약보험금액을 20%씩 자동증액하여 보장해 주는 계약자 중심의 보험이란 점이 특징.

▲ 장기희망보험 개발

제일화재해상보험(주)이 지난 4월3일 재무부로부터 인가 받은 새상품.

장기희망보험은 현행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더욱 수정, 보완한 것으로서 만기시 납입보험료(3월납기준)의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보통약관과 청약서의 체제는 미국의 Package policy 예에 따라 상해, 가재, 건물(부가계약)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사항의 확인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.